

Best Brand

작년 매출액 5200억원... 中 유통망 120개 확대



국내 아웃도어의 대명사인 코로롱스 포츠는 등산 이외에도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이 늘어나는 데 발맞춰 다양한 의류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코로롱스포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와 이민정. 코로롱스포츠는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이미지에 걸맞은 마케팅 활동을 벌인다. 코로롱 스포츠는 매장에 코로롱 스포츠 등산 학교에서 교육받은 전문 판매원을 배치했다.

역원을 올렸다. 올 한해 매출목표는 6000억원이고 매장 수도 150가량 확대 해 총 225개 점포로 확장할 계획이다.

'실버사원' 2000명 채용... 고령층 일자리 창출 앞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뜻하는 '실버사원'을 2000명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 '실버사원' 채용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LH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재취업의 기회를 잡기 어려운 고령인력을 임대주택 관리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전국 657개 단지 51만2000호의 LH 임대아파트에 실버사원으로 배치키로 했다.

이루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5%(109명), 장애인인 12%(232명)의 비율로 채용됐다.

만족도 69.8점을 기록했다. 실버사원 채용 전후 삶의 만족도는 34.2%에서 70.5%로 올랐다.

국내·외 16개 노선... 글로벌 항공사로 비상



애경그룹 계열의 제주항공은 취항 6년 만에 국내선 3개 노선과 국제선 13개 노선을 갖추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3대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 승무원들이 즐겁게 웃고 있다.

제주항공은 항공업계에서 국내 3대 저비용 항공사(LCC)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달 10일에는 저비용 항공사 중 최초로 누적 탑승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집중했다. 저비용 항공사 비행기는 위험할 것 같아 무조건 타지 않겠다는 소비자 심리를 바꾸기 위한 활동에 나선 것.

동도 동아시아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국제선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이 같은 실적은 '가치는 높아야 하지만 비용은 낮아야 한다'는 원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효했다.

제주항공은 앞으로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면모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저비용 항공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제선 강화에 힘쓰겠다"이라며 "올해 3600억원의 매출액과 15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온·오프라인 강의 동시 수강... 학생의 선택 폭 넓혀



한양사이버대학교는 개교 10년여만에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등 각종 대외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최고의 사이버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개교 10년여만에 각종 대외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최고의 사이버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2007년 교육부의 원격대학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평가에서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수업(교수학습) 영역, 인적자원 영역, 물적자원 영역, 경영 및 행정 영역, 교육성과 영역 등 6개 영역 전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대학운영의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부문에서도 '종합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받았다.

연속 수상,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2006~2011년 6년 연속 수상 등 매년 많은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양대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 한양대학교 학생들도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2010년 12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마련한 '2010년 고등교육 이력권 콘텐츠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장점은 온라인 대학에서 느낄 수 없는 캠퍼스 생활의 묘미도 함께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수업은 물론 한양대학교의 오프라인 강의도 한양대 학생들과 함께 수강할 수 있다.

매년 많은 한양대 학생이 이어지고 있어 수강신청이 단 몇 분 만에 종료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생은 도서관 이용시 한양대 학생과 똑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도서관의 열람 및 대출 등 제한 이용권이 주어진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이외에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2006~2010년 5년 연속 수상, 하이스트브랜드 2006~2011년 6년

김주현 조선비즈 기자 amicuz@chosunbiz.com

젊은 손의 비결 '피테라'로 남자 피부에도 기적을



SK-II MEN은 3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여성의 맑고 투명한 피부 기적을 실현해 온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SK-II에서 내놓은 남성 전용 브랜드다.



SK-II 제품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SK-II MEN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등 스킨케어 스텝 3종.

'피부가 남자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라는 철학을 강조하는 SK-II MEN은 배우 겸 감독 유지태를 모델로 발탁,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내세웠다.

도록 도와준다. 또 '쿨링 에이전트' 성분 함유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고 오랜 시간 상쾌한 느낌을 준다.

선보일 예정이다. 신제품 '에이지 리바이탈라이징 모이스처라이저'는 자연 그대로의 피테라와 오토, 완두 등이 초기 노화 징후인 잔주름을 완화하고 수분을 공급하며 탄력까지 잡아주는 것이 특징이다.

'피부가 남자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라는 철학을 강조하는 SK-II MEN은 배우 겸 감독 유지태를 모델로 발탁,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내세웠다. 최근에는 SK-II의 제품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의 남성 버전을 선보이며 '14일의 맑고 생기 넘치는 피부변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광고하고 있다.

SK-II MEN의 시작은 '피테라'의 발견에서 비롯됐다. 나이가 든 조주사들의 부드럽고 젊은 손의 비결이 바로 피테라였던 것이 알려지며 화장품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모이스처라이징 클렌저'는 크림과 같은 풍부한 거품이 노폐물과 과도하게 분비되는 피지를 모두 제거, 피부와 모공을 깊숙이 닦아 준다. 또 자연 그대로의 피테라 성분이 세안 후 상쾌함과 촉촉함이 오래가게 한다.

피테라가 90% 이상 함유된 SK-II MEN의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거칠고 칙칙하고 번들거리는 피부를 개선, 맑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SK-II MEN은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와 함께 '에이지 리바이탈라이징 모이스처라이저'와 '모이스처라이징 클렌저'로 구성된 SK-II MEN의 '스킨 케어 스텝(Skin care step)' 제품도

우고은 조선비즈 기자 woon@chosunbiz.com

초·중·고 교과서 점유율 1위... 독도 교과서 출간도



1981년 설립된 천재교육은 '해법수학' 시리즈를 시작으로 유아부터 초·중·고 참고서와 문제집 등 연 3700여 종에 이르는 학습 교재를 개발·발행해 왔다. 현재 천재교육은 (주)해법교육, (주)프린피아, (주)천재문화, (주)천재교과서, (주)천재상사 등 5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천재교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독도를 제대로 알고자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초·중·고 독도 교과서를 동시에 출간했다.

천재교육은 그동안 5~7차 교육과정 및 7차 개정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국정·검정·인정 교과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출원한 초·중·고 검정 교과서 55책 중 52책이 합격해 최다 합격을 기록하기도 했다.

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년에 걸친 교과서 연구 개발 노하우를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배를 타고 직접 독도를 탐방하는 것처럼 화보나 사진집 형태로 독도의 생생한 실제 모습을 수록했으며, 풍부한 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천재교육은 "앞으로는 국제선 강화에 힘쓰겠다"이라며 "올해 3600억원의 매출액과 15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초·중·고 독도 교과서를 동시에 출간했다. 독도 교과서는 국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독도를 제대로 알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자 출간한 것이다.

천재교육은 또 2006년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교재 제작도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각 장애인복지관, 실로암 복지관의 점자 교재 제작에 필요한 초등~고등 학습교재 데이터를 지원하고 있다.

천재교육은 "앞으로는 국제선 강화에 힘쓰겠다"이라며 "올해 3600억원의 매출액과 15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안석현 조선비즈 기자 ahngja@chosunbiz.com